

# 祝 辭

金 鍾 云

오늘 우리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이 뜻깊은 행사에 이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祝辭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
우리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는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法定研究所입니다. 사실 저희 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연구소중의 하나입니다. 그러나 우리 法學研究所는 단지 오랜 역사만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0년 동안에 韓國의 法學研究에 있어 先導的인 役割을 담당하면서 괄목할만한 研究業績을 이룩하였다는 점을 긍지로 삼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大學研究所들은 열약한 研究與件이라든가 研究費支援의 零細性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法學研究所의 그 동안의 研究活動과 研究業績은 기대 이상의 것이었고, 따라서 이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 동안 法學研究所를 발전적 방향으로 연구하여 온 우리 法科大學의 여러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勞苦를 이 자리를 빌어 致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.

오늘 이 자리에는 국가적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는 「韓國의 法學教育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법학교육계의 석학들이신 여러 총·학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였고, 韓國 法學教育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21세기를 향한 先進的 法學教育方案을 논의하시게 되었으니 뜻깊은 일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교무행정과 학생지도는 물론이고 개인연구 등으로 몹시 多忙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대학을 찾아 주시고 이같이 뜻깊은 학술심포지움을 빛내 주신데 대해서 이 대학의 총장으로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.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심포지움이 韓國法學教育의 發展과 改革을 위한 전환기적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야말로 내실이 있는 學術大會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아울러 法學研究所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